



2018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2차 전시 개막

'2018 광주·전남보도사진전' 2차 전시가 지난 2일 오전 전남도청 오후 선출회에서 개막했다. 이날 최기남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장의 안내로 우기중 전남도청무부지사, 오영상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박태선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남도청에서 일주일간, 오는 13일부터는 담양 국제청소년교육재단 내 유당갤러리에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이다.

“옛이야기 들려줄 할머니 모십니다” 한국국학진흥원, 16일까지 20명 모집

한국국학진흥원이 오는 16일까지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할 제10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를 공개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전남지역 15개 시군 20명을 포함해 전국 550명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할머니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릎교육을 되살림으로써 유아들에게는 올바른 인성을 키워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성 어르신인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와 선현마음을 들려주게 된다.

고정된 직업이 없는 만 56세(1962년생)에서 만 70세(1948년생)까지의 여성 어르신 가운데 기본 소양을 갖추고 유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분이라면 학력과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남지역 선발 시군은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등 15곳이다.

참여를 바라는 여성 어르신은 경북 안동 소재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에 지원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한 예비 이야기할머니는 6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019년부터 거주 지역 인근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 누리집(www.storymama.kr)이나 이야기할머니사업단(080-751-07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산 기자

1980년 5월 택시운전사 고 정남철씨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로 선정돼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소는 고 정남철 씨를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선정했다.

정 씨는 1956년 2월 20일생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택시운전사였다.

그는 형이 운영하는 세차장 일을 돕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계엄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

당시 함께 있던 처남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끌려갔다.

계엄군의 부당한 폭력을 몸소 겪은 정 씨는 형과 함께 시민군에 합류했다.

택시운전사로서 지리에 밝아 시민군 차량을 몰며 물자를 날랐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장악하자 몸을 숨겼지만, 약 한 달 뒤인 6월 24일 당국에 연행됐다. 모진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풀려나 후유증을 겪다가 1989년 7월 3일 숨을 거뒀다.

정 씨는 5·18민주묘지 1묘역 3-53묘소에서 영면에 들었다.

5·18민주묘지 관리소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매달 5·18민주유공자를 선정해 공적사항을 알리고 있다. /길용현 기자

'성추행 논란' 박재동 화백, 울주영화제 집행위원장 사퇴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은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시사문화가 박재동 화백이 자신의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집행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화백은 지난 2일 영화제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사장인 신장열 울산시 울주군수가 사표를 수리했다.

영화제 측은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라 신임 집행위원장 선정 계획을 세우고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영화제 측은 박 화백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7일 계획한 영화제의 사단법인 출범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영화제는 2016년 산악 영화를 상영하는 국제산악영화제로 울주군에서 처음 열렸다.

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3회째를 맞는 영화제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법인으로 영화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화백은 또 울주군 법서를 지역문화재단인 범서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울주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범서 들꽃 만화페스티벌에도 관여했는데, 이번 사건 여파로 더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울주군과 범서문화재단은 10년 가까이 이어온 만화페스티벌 행사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박 화백만 배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주 공립유치원 첫 남자 교사 임정섭 씨

“아이들에게 친숙한 선생님 되도록 노력”

방림유치원 발령 “더 활동적으로 놀아주고 싶어요”

“남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낯설 수도 있지만 더 활동적으로 놀아줄 수 있는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남자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임정섭 씨(25)는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씨는 광주시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에 1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27명 중 유일한 남성이다.

1986년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후 공립유치원 교사 시험에서 남성 합격자가 나온 것은 임씨가 처음이다.

임 씨는 지난 2일자로 광주 남구 방림

유치원으로 첫 발령을 받아 출근해 유치원생들과 만났다.

첫 남자 교사를 맞이한 유치원 측은 “환영합니다! 임정섭 선생님”이라는 글귀가 적힌 포스터를 출입문에 붙이며 임씨를 환영하기도 했다.

전남대 교육학과를 지난해 졸업한 임 씨는 2015년 군 전역 후 유아교육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면서 유치원 교사의 꿈을 키워왔다.

임 씨는 “학창 시절 여름 성경학교 등에서 어린이들과 자주 어울리는 등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 맞다는 생각에 유아교육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후 쏟아진

주변의 시선과 관심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다”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아이들에게 친숙한 선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들의 생활 주제에 맞는 활동을 계획하며 교육을 짜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는 “섬세한 면은 여자 선생님들보다 많이 부족할 것 같다”며 “미진한 부분은 꾸준히 정성을 들여 제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지역 유치원 교사에 남성은 임씨가 유일하듯이 초등학교 교사 성비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광주 공립 초등학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78%를 넘었고, 특수학교 교사는 90%에 달한다.



임씨는 “유치원 첫 남자 교사로서 책임을 느끼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남자 후배들도 유치원에 남성 교사가 없다고 망설이지 말고 뜻이 있다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우정청, '사랑의 헌혈 운동'

동절기 혈액수급 어려움 해소 앞장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은 최근 우정청 1층 주차장에 마련된 광주전남혈액원 헌혈차량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

4일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헌혈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생, 고등학생의 방학기간으로 인해 동절기 혈액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정청 임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인 참여

를 희망함에 따라 마련됐다. 헌혈에 참여한 우정청 직원은 “나에게는 작은 나눔이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헌혈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형동 기자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 것”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광주 서구가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2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달중 개소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또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예비부모들이 출산,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최근 서구청 상황실에서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2단지(자치회관 이층),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금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2단지에서는 2단지내 도서관 옆 멀티프로그램실 94㎡ 공

간을 제공하고,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한 운영한다.

서구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와 장난감을 대여하고 2-5개 가정을 품앗이 그룹으로 형성해 자조활동과 부모·자녀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사이 이용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각 가정의 육아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돌봄 서비스와 가정 내 육아 전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자치 시스템 도입으로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비엔날레, 제5기 폴리도슨트 모집

오늘까지 신청...교육 거쳐 최종 20명내외 선발

광주비엔날레가 5일까지 제5기 광주폴리도슨트를 모집한다.

광주폴리도슨트는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세계적 건축가들의 작품인 광주폴리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투어를 진행하며 폴리 작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지난해 완공된 3차 광주폴리가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도심재생 사례로 손꼽히며 주목받고 있다.

또한 2017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 '광주'에서도 광주폴리를 주요 테마로 전시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광주폴리투어 참여 인원이 2,00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폴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제5기 광주폴리도슨트는 2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도보로 장시간 해설이 가능하고 문화와 예술, 광주 역사에 대한 관심과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어 해설

이 가능하면 된다.

건축과 미술, 관광 등 관련학과 졸업자 및 문화관광 해설 경력자 및 외국어 해설이 가능한 자는 우대한다.

선발 절차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교육이 진행되며 15일 개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최종 선발이 이루어진다.

교육 과정은 광주폴리 교육부터 건축 및 광주에 대한 강의를 마친 후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4기수 도슨트들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도슨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광주폴리투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워크숍도 진행된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폴리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gfolly@gwangjubiennale.org)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08-4265 또는 카카오톡 '광주폴리' /이연수 기자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에 박불똥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민예총) 신임 이사장에 민중미술 작가인 박불똥(62)이 선임됐다.

한국민예총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에 박불똥, 부이사장에 미술평론가 강성원을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설립 30년을 맞은 한국민예총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강고한 민주공



화국의 새 역사를 만드는 데 민족예술은 그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소명”이라고 선언했다.

인사

MBC △기획심의부장 안승현 △방송제작부장 김민호 △영상제작부장 김주호 △기술운영부장 이동환 △광고부장 김형상 △문화사업부장 조현성

부고

▲손병숙씨 별세, 손선희씨(아시아문화원 마케팅팀 과장) 부친상=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화) 오전, 장지 대전현충원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the late Mr. Song Chung-un (84) and Mr. Im Sun-ran (75). It lists the names of the deceased,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date and location of the service.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uneral home, Green Valley Funeral Home, and a 24-hour hotline number: 062-250-4455.